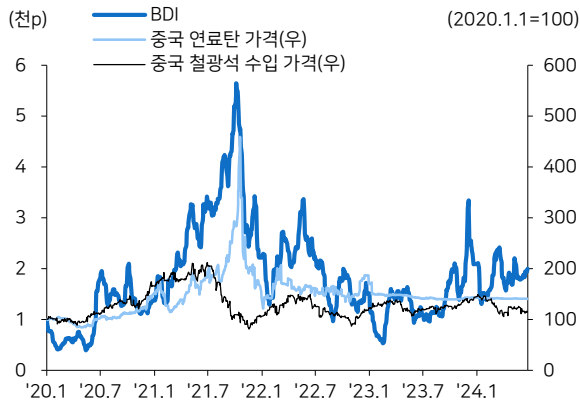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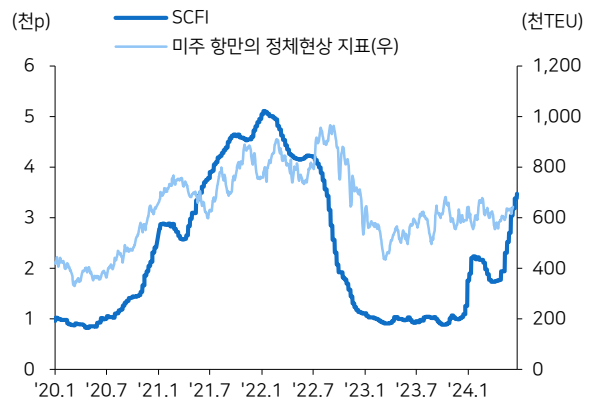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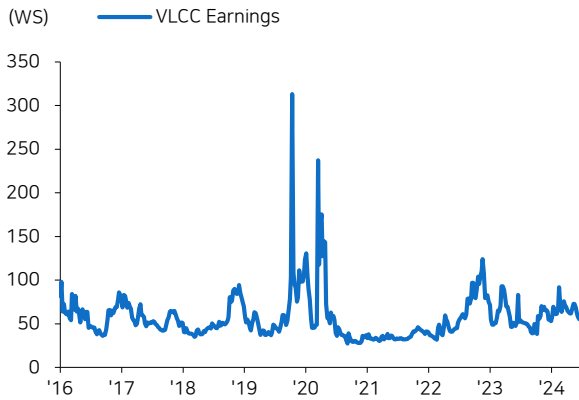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31.0p(+6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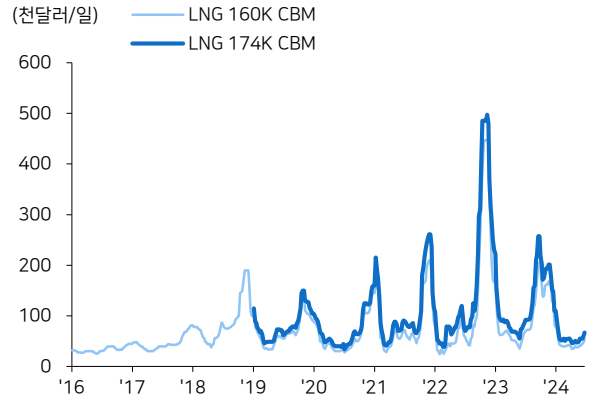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475.6p(+96.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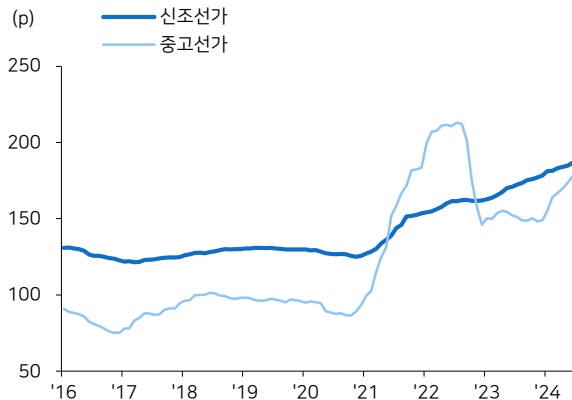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4.7WS (-0.4p WoW)



LNG Spot 운임 53.5천달러(+6.0p WoW)
67.3천달러(+8.3p WoW)



신조선가 187.2p(+0.2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16.0달러+0.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anama Canal pushes up transits as it marks eight years since expansion project

가뭄 상황이 완화되며 파나마운하는 일일통행량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언급됨. 파나마관리당국에 의하면 2024년 7월 22일까지 일일통행량을 34척까지 증가시킨 것에 더해, 8월 5일까지 일일통행량을 35척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언급됨. 파나마운하에 우기가 오르고 Gatun호수 수위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zrr.kr/Pxjx>)

사이버 규정 시행 앞두고 발주 러시

사이버 복원력 규제가 신조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데다 경비가 많이 드는 사이버규제 시행시기인 7월 1일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선주들이 대거 신조선 발주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보도됨. 해당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선주들의 선박 주문이 쇄도함에 따라 조선소의 공급망 경색 현상이 촉발되었다고 언급됨. 총톤수 500톤 이상의 신조선에 적용되는 E26 및 E27 규칙은 조선소공급업체들도 준수해야하는 선상장비의 보안조치를 요구한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https://zrr.kr/Ldph>)

한,중,일,터키 케미컬탱커 10척 수주경쟁 벌일지도

한중,일에 터키까지 가서해서 4개국 조선업체들이 케미컬탱커 10척의 수주경쟁을 벌일 전망이며, 이들은 독일케미컬탱커선사 JohnTEssberge가 발주할 7,500dwt 및 13,000dwt급 메탄올 DF 케미컬탱커를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라고 언급됨. JohnTEssberge측은 가격수준이 괜찮고 슬롯이 남아 있는 조선소를 찾을 수 있다면 최대 10척의 선박을 발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https://zrr.kr/fes1>)

NYK Line and Pertamina plan liquid CO2 transportation tie-up

NYK Line과 Pertamina International Shipping은 LCO2운반 관련 협력을 도모하기도 했다고 언급됨. 2024년 6월 체결된 MOU에 기반하여, Pertamina와 같은 CO2를 배출하는 업체나 저장소운영사들을 대상으로 LCO2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언급됨. 현재 인도네시아 저장소 용량은 5,720억톤에 달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변 CO2매립 수요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저장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언급됨. 두 파트너사는 추후 LNG운반 관련 협력도 도모할 예정이며 합작투자설립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zrr.kr/KqAe>)

Front runner emerges for multibillion-dollar Saudi Aramco strategic gas project

유럽EPC업체 Technicas Reunidas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Jafurah3 가스프로젝트 EPC 계약체결의 유력후보로 파악된다고 언급됨. 이외에도 Sinopec, JGC, 그리고 L&T도 해당 계약건 주요 입찰참가자들이라고 언급됨. Aramco는 Jafurah개발을 우선순위에 두며 다수의 EPC계약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됨. (Upstream) (<https://zrr.kr/Llxs>)

Asian engineering giant faces acute manpower crisis

인도 최대 EPC업체 L&T는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EPC 사업부문에서만 25,000-30,000명 정도의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함.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취업 기회를 모색하게 되면서 자국 인력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언급됨. (Upstream) (<https://zrr.kr/PkzN>)